

家口の 移動決定에 關한 概念的 考察

金 憲 珉
(梨花女子大學校)

《目 次》

- I. 序論
- II. 家口の 移動決定의 概念的 模型
- III. 結論

I. 序論

여러 學問의 關心對象으로 研究되어온 人口移動은 移動者가 自身의 狀況을 改善하고자 行하는 것으로 보아 주로 個人의 觀點에서 移動行態가 分析 되었다. 그러나 事實상 大部分의 사람들은 家族에 속해 있으며, 따라서 移動에 對한 決定도 家族 狀況에서 내려지는 것이다. 家口の 移動行態에 關한 研究들도 몇몇 發表되었으나, 이들은 人口移動을 家口 全體가 移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Long, 1974; Sandell, 1977; Kaluzny, 1975). 실제로 人口移動은 單身移動者와 家口移動者로 함께 構成되어 있다는 事實에도 불구하고 單身移動과 家口移動을 區別하여 각각의 特性과 移動決定要素를 分析한 研究는 매우 未備한 상태이다.

家口移動과 單身移動을 區別하여 本 研究들은 주로 經驗的 研究들이며 (Yoon, 1974; Banerjee, 1984; Parasuraman, 1986), 理論的

分析도 한 Mincer (1978)는 家口の 構成員이 單身移動을 하는 경우 離婚과 같이 家族關係를 斷絶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經驗的 研究들을 통해서 家口移動하는 사람들은 주로 經濟적으로 貧困하고 小作農 家口들이며 (Yoon, 1974), 單身移動者들에 比해 目的地에 와서 社會적으로 統合하려는 努力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Nelson, 1976; Parasuraman, 1986).

우리나라의 경우 家口移動은 30-40代의 既婚者들과 自營業을 하던 人們에 의해 行하여질 確率이 가장 높고, 相對적으로 危險性이 높은 農村에서 大都市로의 移動보다는 農村-農村 또는 같은 道內의 市-市の 移動에서 더 많이 觀察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1990). 移動事由에 있어서도 家口移動과 單身移動이 달리 나타나는데, 家口別 移動은 住宅이나 就業問題가 가장 큰 理由인 반면, 個人別 移動은 家族關係의 理由가 가장 많이 指摘 되었다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이와 같이 家口移動과 單身移動은 移動者

의 特性, 事由, 移動方向에 있어 매우 다른 樣想을 띠고 있으며, 源泉地와 目的地에 미치는 社會的 經濟的 影響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狀況에서 家口移動과 單身移動이 決定되는가에 대한 概念的 分析이 要求되는 바이다. 本考에서는 한 家口가 全體로 移動하던지 아니면 特定 構成員의 單身移動을 家族關係를 끊지 않고도 決定할 수 있다고 보고 어떠한 要素들이 이러한 移動決定을 左右하는가를 概念的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 家口의 移動 決定의 概念的 模型

家口와 家族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意味를 가지고 있으나 本考에서는 같은 用語로 使用하며, 家口란 構成員들의 經濟的 資源을 합쳐서 消費를 나누어 가지는 集團이라고 定義한다. 家口가 移動함으로써 모든 構成員들의 所得 向上이 실현될 수 있다면 함께 移動하겠지만 特定 構成員에게는 所得이 減少된다면 所得 向上이 可能的 構成員만 單身移動하는 것이 家口所得을 最大化하는 것이다. 그러나 家口가 地理的으로 分離되면 住居地를 두군데에 마련해야 하는 追加費用과 心理的인 費用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物理的 및 心理的 分離費用이 家口로 하여금 單身移動을 決定하는데에 阻害要因으로 作用할 것이다. 그러나 家口移動을 하면 源泉地에 터전을 잃게되는 반면, 特定 構成員만 單身移動을 하면 源泉地에 食口가 남아 있으므로 移動者가 就業에 失敗했을 경우 비교적 쉽게 歸還을 할 수도 있고 送金으로 移動者의 生計을 維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家口移動과 單身移動을 家口의 觀點에서 볼 때 각각 長短點들이 존재하며, 構成員들의 狀況과 目的地에서의 展望에 따라 家口의 最適決定이 내려질 것이다.

다음에는 어떠한 狀況에서 家口移動 또는

單身移動이 決定되는가를 分析할 수 있는 概念的 模型을 展開한다. 우선 다음과 같은 假定을 한다.

1. 家口의 目的函數는 家口의 全生동안의 效用을 最大化 하는 것이며, 家口의 效用은 적절히 割引된 각 構成員의 所得이 合의 函數이다.

2. 家口는 각 構成員들의 資源을 결합한 家口所得을 바탕으로 각각의 消費에 配分한다. 한 地域에 모든 構成員이 함께 있지 않을 때에는 送金과 受取로 家口所得의 結合과 配分이 이루어진다.

3. 目的地에서 얻을 수 있는 所得에 대해서는 不確實性이 存在하나 현재의 源泉地에서의 所得에 대한 不確實性은 없다.

위와 같은 假定 下에 家口의 移動 決定이란 세가지 代案中 하나를 選擇하는 것이며, 이는 각 案에 따른 期待된 純家口所得의 크기에 의해 決定된다. 移動決定의 세가지 代案은 다음과 같다: ① 移動하지 않는다, ② 모두 함께 移動한다, ③ 家口 構成員 한명만 移動한다.

우선 分析을 單純化하기 위해 2人 家口의 (한 例로 夫婦만 있는 家口) 農村에서 都市로 移動하는 問題를 短期 模型으로 파악하여 보자. 이 家口는 危險中立이라고 假定하고 家口所得을 最大化하는 目標을 두고 移動決定을 한다. 각 구성원의 期待收益의 모든 可能的 結合에 대한 家口의 移動決定이 圖表-1에 나타나 있으며, 圖表의 가로와 세로 軸은 각 構成員 i 의 移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純期待收益(Y^m)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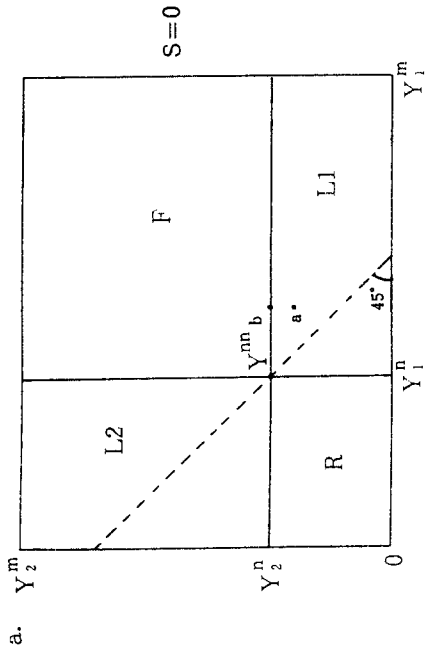
$$Y^m_i = E(y^m_i) - C_i,$$

C_i : 構成員 i 의 移動比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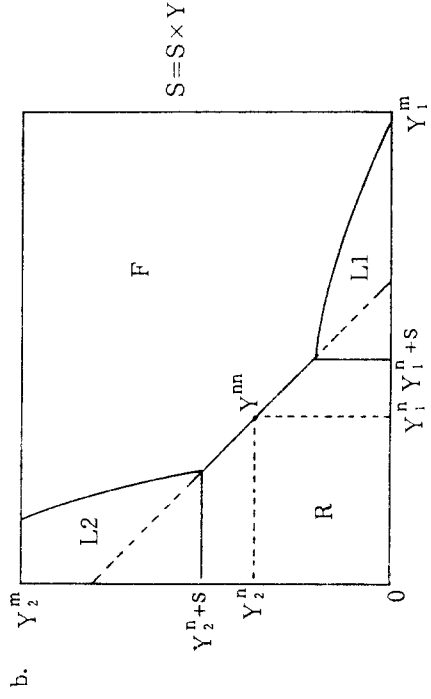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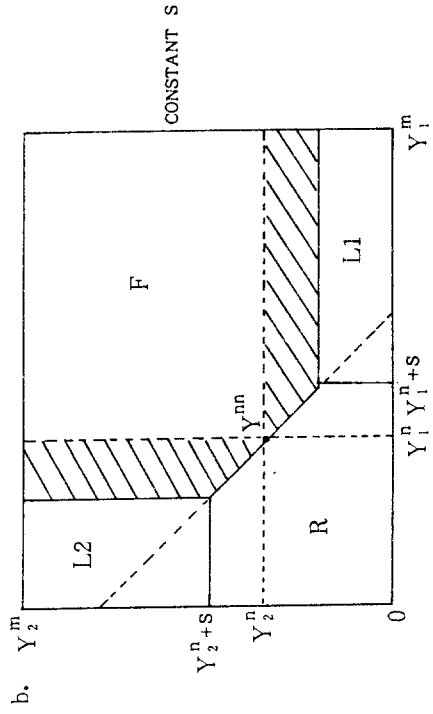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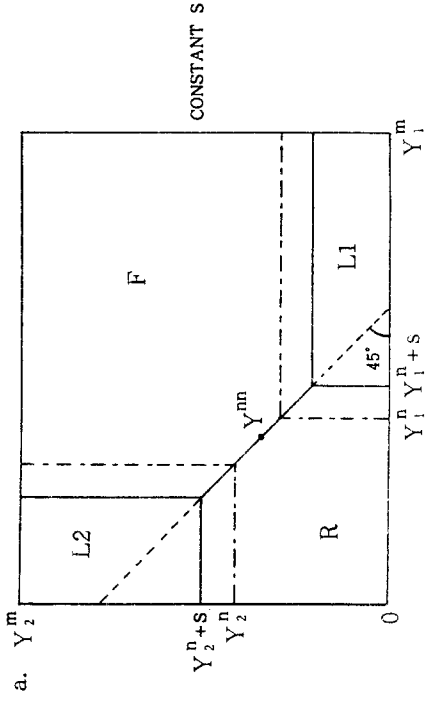
$E(y^m_i)$: 構成員 i 의 目的地에서의 期待所得

圖表의 Y^m 점은 어느 構成員도 移動하지 않을 때 즉, 源泉地에서의 所得의 結合을 나타내며, Y^m 을 지나는 45도 角度線은 現在 狀態

図表-1. Family Migration Decision



図表-2. Family Migration Decision



와 같은 家口所得을 나타내 준다. 이 線의 上右(下左) 部分은 家口効用이 現在 狀態보다 增加(減少)한 所得의 結合이며, 이 線上의 家口所得에 대해서 家口는 無差別하다.

圖表-1(a)는 家口の 分離費用이 零일 때 家口의 移動決定을 나타내고 있으며, 構成員들의 純期待收益의 모든 可能的 結合에 대해 F는 家口移動이 결정되는 家口所得 地域, L1과 L2는 각각 構成員 1과 2의 單身移動이 결정되는 地域, 그리고 R은 아무도 移動하지 않는 決定이 내려지는 家口所得이다. 移動함으로써 構成員 둘다 目的地에서 現在보다 더 높은 收益을 期待할 수 있으면 家口移動을 (F) 하고 둘다 더 낮은 收益이 期待되면 당연히 移動하지 않는다 (R).

두 構成員中 한명만 目的地에서 더 높은 收益을 期待할 수 있다면 그 構成員만 移動하여 家口는 分離되게 된다 (L1 또는 L2). 예를 들어 圖表-1(a)의 a점은 構成員 1의 目的地의 期待收益은 現在보다 더 많으나 構成員 2는 現在보다 더 낮은 收益이 豫想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두사람의 移動에 따른 期待收益이 相衡될 경우 構成員 1만 目的地로 移動하고 構成員 2는 남아있는 것이 家口所得을 最大化하는 것이다. 따라서 a와 같은 點에서는 單身移動이 決定되고 構成員들이 分離되어 Y^m 보다 더 나아진 狀態인 b에 到達할 수 있는 것이다. 分離費用이 零인 경우 아무도 묶인移動者 (tied mover) 또는 묶인非移動者 (tied stayer)가 되지 않는다.

分離費用이 零보다 클 때는 두사람의 目的地의 期待所得에 대해 위의 경우와는 약간 다른 移動決定이 내려지게 되며, 圖表-1(b)에서 分離費用이 存在할 경우 각 移動決定의 領域을 連續된 線으로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構成員 1의 單身移動이 決定되는 L1은 構成員 1은 移動함으로써 더 높은 收益을 期待할 수

있으나, 構成員 2는 移動하면 現在보다 더 낮은 收益이 期待되는 경우인데 後者の 損失이 家口가 分離되어 치르게 되는 分離費用보다 더 큰 경우이다. 圖表-1(b)의 家口移動 決定地域 (F) 중 빋금친 部分은 構成員 중 한명의 收益이 移動함으로써 더 낮아지는 경우이나 分離費用을 考慮하면 함께 移動하는 것이 純家口所得을 最大化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빋금친 部分에서는 묶인移動者 (tied mover)가 생기는 것이다. 둘다 移動하지 않는 R의 점찍힌 部分은 分離費用 때문에 묶인非移動者 (tied stayer)가 생기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諸 要素들이 不變한다면 分離費用이 없을 때에 (도표-1a) 比해서 分離費用이 存在할 때에 (도표-1b) 單身移動이 決定되어질 경우가 더 적어진다.

單身移動의 長點은 移動者가 目的地에서 就業에 성공하지 못한 동안은 源泉地에 남아있는 家族이 보내오는 送金에 依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模型에서는 失業의 期間이 길어지면 移動者는 언제든지 다시 源泉地로 돌아와 移動 前의 作業을 할 수 있다고 假定한다. (移動前에 했던 일이 農家 일이나 家口 自營業이라면 이 假定에는 無理가 없다고 본다). 目的地에서 就業에 失敗했을 경우 당분간 送金を 받을 수 있다는 點과 失業이 持續되면 歸還할 고향집이 남아 있다는 點이 바로 單身移動의 長點이며, 이것은 移動의 危險性を 減少시키는 作用을 한다. 다시 말해 單身移動은 家口의 一部가 남아 있으므로 目的地의 就業에 不確實性이 따른 移動의 危險성에 對處하는 보험효과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單身移動에는 家口分離 費用이 따르지만 위와 같은 保險效果의 利得이 동시에 存在하며, 이러한 要素들이 家口의 移動決定에 考慮되는 것이다. 單身移動의 保險效果에 따른 利得을 고려한다면 圖表-2(a)와 같이 分離費

用한 고려했을 때보다 單身移動의 可能性이 增加한다. 目的地에서의 危險性(失業의 確率)이 클수록 單身移動의 利點이 크게 作用하므로 圖表-2(a)의 화살표 방향으로 늘어나는 單身移動 部分이 더욱 增大할 것이다.

위에서 이미 論議한 바와 같이 分離費用 은 家口가 分離되었을 때에 따르는 經濟的, 社會的, 心理的 費用을 포함한 것이다. 圖表-1 (b)와 같이 分離費用을 固定費用으로 나타낼 수도 있으나 分離費用은 家口所得의 函數로 보는 것이 더 現實的인 것이다. 圖表-2(b)는 分離費用이 家口의 期待所得에 따라 增加하는 경우의 移動決定을 나타내고 있으며, 構成員의 期待收益이 現在所得보다 더 많을 수록 分離費用이 커지므로 他 要素들이 不變하다면 現在보다 아주 높은 期待收益이 해당되는 경우에 家口의 分離가 要求되는 單身移動決定이 내려질 可能性은 매우 적어지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각 移動決定에 따른 純家口所得은 위의 分析에 따라 다음과 같다.

$$Y^{nn} = Y^{\eta_1} + Y^{\eta_2} : \text{아무도 移動하지 않을 경우,}$$

$$Y^{mm} = Y^{\eta_1} + Y^{\eta_2} : \text{家口移動 할 경우,}$$

$$Y^{nn} = Y^{\eta_1} + Y^{\eta_2} - S + I : \text{構成員 1의 單身移動의 경우,}$$

$$Y^{mm} = Y^{\eta_1} + Y^{\eta_2} - S + I : \text{構成員 2의 單身移動의 경우,}$$

S : 家口分離費用,

I : 保險效果를 나타내는 收益,

Y^{η_i} : 構成員 i의 移動에 따른 純期待收益,

Y^{η_i} : 構成員 i의 非移動에 따른 純期待收益,

$i = 1, 2$

家口의 移動決定은, $\max \{Y^{nn}, Y^{mm}, Y^{nn}, Y^{mm}\}$ 에 該當하는 決定을 하는 것이다.

圖表 1과 2의 原點은 構成員들의 가능한

最小收益을 나타내고, 세로와 가로 軸의 끝은 각 構成員의 가능한 最大期待收益을 나타내 준다. 만일 그래프의 構成員들의 期待收益의 結合點들이 모두 같은 確率을 가지고 있다면 각 移動 決定의 確率은 該當 移動決定의 面積과 그래프의 全體 面積의 比率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構成員 1이 單身移動할 確率은 L1 面積 對 全體 面積인 것이다.

위의 그래프를 통해 分析한 短期 家口移動決定模型을 바탕으로 家口의 勤勞壽命, 目的地에서의 就業 確率, 그리고 家口所得에 比例하는 分離費用을 고려하여 각 移動形態에 해당하는 純家口所得을 再定意하면 다음과 같다.

$$Y^{nn} = T(y^{\eta_1} + y^{\eta_2}),$$

$$Y^{mm} = T(p_1 y^{\eta_1} + p_2 y^{\eta_2}),$$

$$Y^{nn} = p_1 * T\{(1-s)(y^{\eta_1} + y^{\eta_2})\} + (1-p_1) \{d(1-s)y^{\eta_2} + (T-d)(y^{\eta_1} + y^{\eta_2})\}$$

T : 家口의 勤勞壽命,

y^{η_i} , y^{η_i} : 構成員 i의 각각 目的地의 所得과 源泉地의 所得

p_i : 構成員 i의 目的地에서의 就業確率, 즉, y^{η_i} 를 얻을 確率, (1-p)는 失業의 確率이다,

d : 移動者가 歸還하지 않고 失業者로 目的地에 머물러 있는 期間,

s : 家口分離費用率, $0 < s < 1$

위의 式들은 單純化하기 위하여 割引率과 移動費用(C)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 變數들의 缺如는 이 模型의 基本 특성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위의 式들은 家口 構成員의 勤勞壽命이 같다고 나타내고 있으며, 年齡이 비슷한 夫婦의 경우 이 假定에 無理가 없다고 본다. 單身移動에 해당하는 純家口所得 Y^{nn} 의 右側 式의 後半部가 위에서 논의한 單身移動의 保險效果의 利得이다.

單身移動에 따른 家口分離費用을 家口所

得과 比例하는 것으로 보고 家口의 分離費用率은 構成員 중 누가 移動者가 되는가에 상관 없이 固定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食口數가 여럿인 경우에는 移動者에 따라 分離費用率이 다르게 適用될 수도 있다. 分離費用이란 經濟的, 社會的, 心理的 要素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들 變數들의 函數이다. 예를 들어 어린 子女가 있는 家口의 경우 어머니가 移動者가 될 때 아버지가 移動하는 것 보다 分離費用이 相對的으로 더 높게 產出될 것이다. 이러한 理由로 既婚女性の 單身移動은 현실적으로 既婚男性的 單身移動보다 드물게 觀察되는 것이다.

移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純家口利得은 家口移動의 경우 $G^{mm} = Y^{mm} - Y^{m1}$, 單身移動의 경우 $G^{m1} = Y^{m1} - Y^{m1}$ 이다. 위의 각 移動形態에 따른 純家口所得 方程式의 變數들이 G^{mm} 과 G^{m1} 에 미치는 影響은 部分微分을 통해 分析해 볼 수 있다. 構成員 1을 家口主로 보고 家口主의 單身移動과 家口全體의 移動의 可能性을 비교해 본다면 變數들의 變化에 따라 다음과 같이 變한다.

1. 配偶者의 源泉地 所得, y^m_2 가 零에 가까우면 家口主의 單身移動이 決定될 可能性은 거의 없다. 즉, 家口主가 目的地에서 더 높은 所得이 期待되어 移動을 고려할 때 配偶者가 經濟活動을 하지않고 있다면 家口移動이 決定된다. 配偶者의 源泉地에서의 所得이 增加할수록 家口主의 單身移動의 可能性은 커진다. 따라서 家口主의 單身移動의 가능성은 다른 構成員의 源泉地에서 버는 所得의 比例의 規模에 일부 의 존한다.

2. 家口主의 目的地에서의 就業確率が 높을수록 家口移動의 可能性이 높아진다. 또한 家口主의 目的地에서의 期待所得 ($p_1 y^m_1$)을 固定시켜 놓고 보더라도 目的地에서의 危險성이 클수록 즉, p_1 이 적을수록 單身移動의 可能性이 增加한다. 그 理由는 家口가 危險中立이라도

就業의 確率が 적으면 單身移動의 경우 歸還의 可能性이 높아지고 歸還하면 移動前의 所得을 다시 벌 수 있기 때문이다. 家口가 危險忌避의 이라면 單身移動이 決定될 可能性은 더욱 높은 것이다.

3. 目的地의 所得이 (y^m_1) 높을수록 家口移動이 決定될 可能性이 커진다. 그 理由는 分離費用이 家口所得에 比例하기 때문이다.

4. 家口主의 源泉地의 所得이 (y^m_1) 클수록 家口主의 單身移動의 可能性이 커진다. 源泉地의 所得이 높다는 것은 위의 Y^{mm} 式에서 볼 수 있듯이 그만큼 移動의 危險성에 대처하는 保險效果의 利得이 더 크게 產出된다.

위는 本稿에서 展開된 家口移動決定模型에서 직접 導出할 수 있는 命題들이며, 그 외에 이 模型은 다음 사항들을 示唆해 준다.

目的地에 대한 情報가 많은 家口일수록 不確實성이 적고 就業의 可能性도 많다고 볼 때 家口移動이 결정될 可能性이 커진다. 따라서 目的地에 親戚이나 親舊가 있거나 目的地의 距離가 가까운 경우에 家口移動의 可能性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源泉地에 所得源泉이 많을수록 家口移動의 可能性은 적어진다. 예를 들어 家族中에 經濟活動을 하고 있는 構成員이 많은 家口, 自營業이나 土地를 所有하고 있는 家口들은 그렇지 않은 家口에 比해서 家族 모두가 移動하는 可能性이 적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源泉地에서 家口の 經濟水準이 낮을수록 家口移動의 可能性이 높아진다.

分離費用이 높을수록 單身移動의 可能性이 적은 것으로 보아 어린 子女가 있는 家口는 單身移動을 忌避할 것이며, 특히 그러한 家口의 既婚女性の 單身移動의 可能性은 더욱 적을 것이다. 成年이 되어 分家하거나 分家が 조만간에 예상되는 構成員의 경우 單身移動에 따른 家族과의 分離費用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임

로 이러한 構成員의 單身移動의 可能性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經濟的 要素 外에 家口의 라이프사이클 (life cycle) 變數들이 家口移動決定에 중요한 影響을 미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模型에서 單身移動者가 家口移動者에 비해 送金과 受取를 할 可能性이 더 많고 目的地에서 失敗했을 경우 歸還移動의 可能性도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위의 家口移動의 概念的 模型은 실제로 관찰되는 家口移動과 單身移動의 特性에 대한 說明을 제공해 준다. 우리나라의 家口移動은 目的地의 所得, 移動者의 年齡, 危險성이 비교적 낮은 移動과 陽의 關係를 가지고 있으며, 未婚狀態, 目的地에서 失業狀態와 陰의 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1990). 이와 같은 相關關係는 本稿에서 전개된 家口移動의 概念的 模型에서 示唆해주는 點들과 一貫성이 있는 것이다.

Ⅲ. 結 論

人口移動에 관한 研究에 있어 移動이 모두 單身移動이라거나 모두 家口移動이라고 假定하여 分析하는 것은 人口移動의 중요한 측면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家口移動과 單身移動을 구별하여 분석한 몇몇 實證的 研究에서도 (Yoon, 1974;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Kim, 1990) 나타나듯이, 家口別로 移動하는 사람들과 單身으로 移動하는 사람들의 特性이나 移動決定 理由가 다르며, 이 두가지 類型의 移動者들이 源泉地와 目的地에 미치는 社會 經濟的 影響 또한 매우 다르다.

本稿에서는 家口를 意思決定 單位로 보고 家口移動, 單身移動, 그리고 아무도 移動하지 않는 選擇代案 중에서 家口効用을 最大化하기 위해 어떤 要素들이 고려되어 移動決定이 내려지는가를 概念的 模型을 통해 分析하였다. 위

의 論議는 家口의 移動決定은 어느 한 構成員의 移動에 따른 所得增大機會 與否 外에 他 構成員들이 지니고 있는 經濟的 및 社會的 與件에 의한 影響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다시 말해, 經濟的 要素들 外에 配偶者의 經濟活動 與否와 家口의 라이프 사이클 變數들이 移動決定에 중요한 要素들로 作用하는데, 그 理由는 이러한 變數들이 각 移動代案의 費用 (특히 分離費用과 利得 (특히 保險效果 利得)의 產出을 變化시키기 때문이다. 本稿의 概念的 分析에서는 單一 經濟活動 構成員을 가진 家口, 經濟水準은 낮으나 目的地에서의 所得增大 展望이 비교적으로 좋은 家口, 그리고 分離費用이 높은 家口는 單身移動보다 家口移動을 결정할 可能性이 크다고 示唆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家族에 속해 있다고 볼 때 個人 單位의 移動決定을 분석하기 보다는 家口의 移動決定 行態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욱 적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人間 行態 分析을 個人的 觀點에서 보다는 家口 또는 家族의 觀點에서 接近하는 것이 많은 社會的, 經濟的 現狀을 더 잘 理解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앞으로 家口移動行態에 관한 研究들이 더욱 活潑해지려면 우선 이에 맞는 理論的 模型이 더 많이 開發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理論들을 더욱 철저히 檢證하는데 使用될 수 있는 微視的 統計資料의 蒐集作業이 體系의으로 進行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最近의 人口政策 動向과 展望」
- Banerjee, B. (1984). "Rural-to-Urban Migration and Conjugal Separation: An Indian Case Study,"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32, pp.767-780

- Graves, P. E. and Linneman, P. D. (1979). "Household Migration :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ults," *Journal of Urban Economics*, 6, pp.383–404
- Harbison, S. F. (1981). "Family Structure and Family Strategy in Migration Decision Making," in *Migration Decision Making*, eds. De Jong, G. F. and Gardner, R.W. Pergamon Press, New York
- Kaluzny, R. L. (1975). "Determinants of Household Migration : A Comparative Study by Race and Poverty Level,"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7:3, pp.269–274
- Kim, H. (1988). *An Analysis of Individual and Family Migration Behaviors : The Case of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_____. (1990). "An Empirical Analysis of Family Migration Decision," *The Journal of Korea Planners Association*, 25:1, pp.175–192
- Levy, M. B. and Wadycki, W. J. (1973). "The Influence of Family and Friends on Geographic Labor Mobility: An International Comparis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5, pp.198–203
- Lipton, M. (1980). "Migration from Rural Areas of Poor Countries: The Impact on Rural Productivity and Income Distribution," *World Development*, 8, pp.1–24
- Long, L. H. (1974).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Residential Mobility of Families," *Social Forces*, 52, pp.342–348
- Mincer, J. (1978). "Family Migration Decis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6, pp.749–773
- Nelson, J. M. (1969). *Migrants, Urban Poverty and Instability in Developing Nations*. Occasional Papers in International Affairs No. 22.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Harvard University
- _____. (1976). "Sojourners Versus New Urbanites: Causes and Consequences of Temporary and Permanent Mig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24:4, pp.721–758
- Parasuraman, S. (1986). "Migration and Its Effect on the Family," *The Indian Journal of Social Work*, 47, pp.1–14
- Sandefur, G. D. and Scott, W. J. (1981). "A Dynamic Analysis of Migration: An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Age, Family and Career Variables," *Demography*, 18:3, pp.355–368
- Sandell, S. H. (1977). "Women and the Economics of Family Migra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9:4, pp.406–414
- Sjaastad, L. A. (1962). "The Cost and Returns of Human Mi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5, pp.80–93
- Todaro, M. (1969). "A Model of Labor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69, pp.183–193
- Yoon, J. J. (1974). "Characteristics of Rural–Urban Household Migration i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18, pp.181–191. Institute of Population Problems, Seoul

(Summary in English)

A Conceptual Analysis of Household Migration Decisions

Hunmin Kim

(Ewha Womans University)

Migration studies that assume that decision making is done on an individual basis is overlooking the importance of the family factor. Considering that most people belong to families, it is more appropriate to view migration decis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amily. This study analyzes the household migration decision whereby the alternatives are to stay, to undertake family migration or to undertake single migration of a member. In developing a conceptual model of household migration decision, it is assumed that the household's objective is to maximize household income which is a function of individual members' earnings. The benefits and costs of household migration and individual migration are identified and the household chooses the migration strategy that maximizes expected household income.

When household members have conflicting earning prospects in the potential destination, the household considers single migration of the member with the best earning potentials. However, lone migration by a household member involves cost of family separation which is both monetary and psychic, and this study shows that lone migration is undertaken only when its net gains to the family are greater than the separation cost of the family. The major benefit of choosing single migration is the retention of home base in the place of origin which can serve as an insurance against the uncertainty of obtaining a job in the destination, the benefit that is unavailable in family migration.

The conceptual analysis shows how a household's migration decision would depend on its members' economic roles and prospects in the destination. Besides the economic variables, social and life cycle variables of the family translate into separation costs and benefits of migration. This study indicates that one-earner family in low economic status but with good earning prospects and high separation costs is more likely to choose family migration over single migration.